

지역 매아리

정읍시, 어버이날 기념식 성료

제47회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가 8일 정읍시노인복지관(관장 최상욱)에서 어르신 1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정읍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한 기념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최낙삼 시의회 의장과 도의원, 시의원,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이호춘 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창작민속악단 '박버리'의 흥겨운 무대로 시작했다. 이어 어르신들에게 카케이션을 증정했다.

또 효를 실천하고 있는 효행자와 모범가정,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 대상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기념식 후에는 점심과 금회헌식, 부부&우정 기요제가 진행돼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유진섭 시장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자식들의 당당한 도리어 의무"라며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 문화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서 청문실, 내부고객과 공감 특 통한 비위예방 앞장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청문감사실은 어버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행사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분에 취한 운전의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5월 가정의 달 우리가족 행복은 자기관리 철저에서부터를 홍보하고 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정의 일탈 행위는 자신과 가족에게 큰 슬픔을 줄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에게도 적잖은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시켜 가정에 달 취지에 맞는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켜 의무위반행위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거창한 시책과 굳은 각오를 세워야 의무위반을 하지 않는 것 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을 생각하는 최소한의 배려에서부터 의무위반행위는 근절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병덕 경위는 "스트레스를 풀다는 핑계로 멀쩡한 정신으로 집에 들어간 날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과음에 폭음까지 흐트러진 생활을 이어간 것 같다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술 량과 음주 횟수를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영화관람 하는 등 알찬 시간계획을 짜보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서장은 "가정이 화목해야 주민들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직장생활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며 공직자의 본분에 맞는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의 랜드마크로 부상

벚꽃로와 천변로 있는 'c·라하다리' 가설공사 본격 추진...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

매년 봄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나들이객에게 즐거운 선물을 선사하고 있는 정읍천의 벚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가정 연지교 가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읍시는 연지교가 정읍 시민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공간인 만큼 가치와 상징성을 부여하는 명칭으로 공모에 나선 바 있다.

지난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 연지교에 대한 명칭을 공모한 결과 총 52건 중 'c·라하다리'라는 명칭이 채택되었다.

시는 단순하게 정읍천 위를 지나는 교량이 아닌 볼거리와 즐길 거리, 상

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명칭 공모를 실시했다.

'c·라하다리'는 2020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며, 사업비 89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길이 73m, 폭 35m의 4차선 차도와 길이 27m, 폭 7.5m의 아치형 전망 공간을 갖추게 된다.

또한, 분수·조경·조명뿐 아니라 인도교에 무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여 정읍시 랜드마크로 부상시킨다는 계획이다.

'c·라하다리'가 완공되면 서부산업도로의 연속성 확보는 물론 시가지 중심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c·라하다리' 착공 시 차량통행 불편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지만 정읍경찰서와 정읍시 교통과가 교통시설 협력을 마쳤다.

또, 신호체계 변경에 대해 현수막 게시, 이동장회보 등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교량의 상징성 및 디자인과 연계해 지역 고유의 가치를 담아 지역의 정체성을 오롯이 발산하며, 지역 이미지를 제고 하고 정읍의 랜드마크로 부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내년에도 꼭 다시 만나요"

부안마실축제 딸기수확체험 큰 인기... 가족단위 체험객 몰려

제7회 부안마실축제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딸기수확체험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부안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부안스포츠파크 인근 붉은딸기밭에서 진행된 마실축제 체험 프로그램인 딸기수확체험에 가족단위의 나들이객이 몰리면서 당초 목표인원 350명을 초과한 47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딸기수확체험은 최첨단 ICT 자동화시설에서 이뤄짐으로써 딸기

수확을 통해 딸기를 따먹고 딸기의 생육과정을 배우면서 직접 딸기로 샌드위치·쉐이크·딸기잼·딸기종류 만들기 등 다채롭게 진행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다.

또 투호던지기, 고리던지기, 제기차기 등 옛 추억의 전통놀이가 함께 진행돼 체험장을 찾은 관광객의 발길을 잡았다.

타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방문한 한 체험객은 "다른 체험행사보다 딸기수확체험에 오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왔는데 내년에도 다시 꼭 오고 싶다"고 말했다.

축제장은 찾은 권익현 부안군수는 "할아버지·할머니, 아빠·엄마, 자녀 등 3세대(代)가 함께 딸기수확체험을 찾은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흐뭇하다"며 "부안마실축제가 온 가족이 함께 찾아 즐거움을 얻고 힐링할 수 있는 가족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위주의 행사를 준비해 부안마실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기억에 남는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우리밀 푸른들 축제 성료... 금판리 들녘서 다양한 프로그램 호평

제11회 백산면 우리밀 푸른들 경관보전 축제가 8일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들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백산면 경관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정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축제는 푸른 들녘을 배경으로 포토존을 곳곳에 설치해 어른들에게는 옛날의 아련한 향수를, 어린이들에게는 자연학습과 더불어 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했다.

특히 꽃마차 타고 탐방, 밀밭 걷기, 방향제 만들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치러졌다.

또 우리밀로 만든 봉어빵, 호떡, 오색국수 등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해 참석자들이 함께 나눠먹으며 우리밀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우리밀 푸른들 축제가 8일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들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유인갑 백산면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경관농업 확대, 밥맛 좋은 쌀 생산, 융복합산업 발굴 등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백산면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제작 지원하는 드라마 '녹두꽃'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여그가 데레비에 나왔던 거그여?"

고창읍성·선운사, 드라마 녹두꽃 촬영지로 '인기몰이'

고창군이 제작 지원하는 드라마 '녹두꽃'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촬영지인 고창읍성과 선운사를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휴일이었던 지난 6일 고창읍성 동헌. 많은 관광객들이 평간당을 배경으로 줄지어 사진을 찍고 있었다. 평간당은 드라마에서 전라감영으로 나오고 있다.

고창읍성 문화해설사 오창심씨는 "평소 고창읍성을 찾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던 평간당이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고 난 뒤에는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학군과 관군의 전투신이 촬영된 '선운사', 남녀 주인공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선운

산 산책길', 형과 아우가 진한 우애를 나눴던 '복판지주'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무장읍성'에서도 드라마 초반부의 핵심 장면들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드라마 연기자와 스태프 등 100여명이 고창지역 숙박업소와 식당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드라마 '녹두꽃'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속에서 농민군과 토벌대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이북형제의 휴먼스토리를 그리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 민중운동으로 커져갔던 '무장기포지', '전봉준 장군' 생가가 있는 고창군도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로 거듭난다

노인생활시설 빨래건조기 지원

정읍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갈수록 심화 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효심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 65세 이상 인구가 2만8,695명으로 전체 인구의 25.7% 비율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노인생활시설에 빨래건조기를 지원하여 의류의 미세 먼지 제거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내 16개소 노인요양시설에 사업비 5,200만원(보조 3,640만원, 자부담 1,560만원)을 투입하여 총 26대의 의류건조기를 지원한다.

노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빨래건조기 설치비를 정읍시가 70% 지원한다.

노인생활시설 생활 환경의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강화를 도모함은 물론 크고 작은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중심의 효심 행정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며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고령층을 배려한 맞춤형 정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